



제2741호 2024년 11월 24일(나해) (백)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발행인 김선태 주교 | 주소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편집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홈페이지 <http://jcatholic.or.kr> | E-mail catholic114@hanmail.net

교구장 사목교서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숨정이

JEONJU DIOCESE SUNDAY BULLETIN



용머리성당(2지구)

사진 | 강주연 헬레나(가톨릭사진가회)



① 권완성 신부(주임) ② 강 벨라뎃다(원. 나 엘리사벳(오른) 수녀(사랑의씨튼수녀회) ③ 윤찬섭(사목회장) ④ 김학덕(사무장) 외 사목회원

입당송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_ 다니 7,13-14

화답송 _ 시편 93(92),1ㄱㄴ.1ㄷ-2,5(◎ 1ㄱ)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

○ 누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

○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

제2독서 _ 묵시 1,5ㄱㄴ-8

복음환호송 _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음 _ 요한 18,33ㄴ-37

영성체송 _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보 <숨정이>는 전주교구의 역사이고 소식이며 선교입니다. 성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지금 내 안의 왕은 누구인가?



김경수 사도 요한 신부
(교구 관리국장)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왕 대축일입니다.

이 대축일을 선포할 당시
에 교황 비오 11세는 확산
되어 가는 무신론과 세속
주의에 맞서 신자들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세상
의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
서 오늘 독서는 지상과 천상의 구분이 없는 영원
무궁세에 진정한 왕이신 분의 도래에 대하여 이야
기합니다.

오늘 제1독서인 다니엘서는 박해자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언젠가는 다 망할 것이고
오로지 하느님의 왕권만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선
포합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
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다니 7,14)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박
해를 받다가 순교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서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알파요 오메가’이신 영원
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
스도께서는…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십니다. 보
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묵시
1,5,7) 한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
화 안에서 우리는 ‘왕’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
오?”(요한 18,33)라는 빌라도의 물음에서 그가 말
하는 왕은 지극히 세상적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곧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냐는
물음이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초월하는 왕으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
는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

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요한 18,36.37)라고 말
씀하십니다. 이후 세상의 영광스러움이 아닌 가시
관을 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왕
의 길을 가십니다. 결국 가시관을 쓴 왕은 십자가
에서 목숨을 바치시고, 죄 사함의 제물이 되시어
우리 구원을 위한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과 권력자들은 그러한
구원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
닌 그들이 현세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에게 필
요한 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왕, 자신들의 힘을 되
찾아줄 왕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앞에 선 그리스도(미할리 문가치작)

오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보내며 우리는 ‘나의
왕은 누구인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
은 누구인가’ 성찰해 봤으면 합니다. 세속의 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과 명예 그리고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힘이 왕이 되어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신앙인으로서 가시관을 쓰
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왕께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
니다.

이번 한 주 성서 주간을 보내며 성경이 전해주
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 그리
스도 왕께서 내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도록 그분
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성지순례 유감

프란치스코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모시는 우리 본당은 언제부터인가 매년 본당의 날을 10월 4일 전후로 지낸다. 행사로는 격년제로 한 해는 전 신자 체육대회를 하고, 다음 해는 성지순례를 간다. 작년에 체육대회를 했으니 올해는 성지순례로 본당의 날과 가까운 주일인 10월 6일에 회의를 통해 왜관 성 베네딕도 수도원으로 장소를 정했다.

나는 내심 새만금 갯벌에서 미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냥 침묵했다. 누가 말을 못 하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과연 그곳이 성지인가?’라든지 또는 관광 버스로 가급적 멀리 가고 싶어 하는 신자들 정서에 한 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새만금 해창 갯벌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나 또한 솔직히 본당신자들을 설득할 언변도 힘도 없다. 대부분 성당이 그러하듯 우리 본당에서도 순례를 준비하며 알코올의 제공 및 음주허가 유무도 토의 사항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성지순례란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일까? 예수회 창립자인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1491-1556) 성인은 그의 『영신수련(1548)』에서 “성인들의 유골에 존경을 표시하고, 순례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한 마음과 신앙적 헌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또한 성지순례의 옹호론자들은 말한다.

즉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계신다고 믿는 성인 성녀들은 우리들의 변호자가 되어준다는 것과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사도신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들이 하느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청원을 더욱 쉽게 전구해준다고 신자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성지를 방문하는 것 또한 거룩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성지순례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개신교 내 신학자들도 있다. 특히 마르틴 루터는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1520)』에서 순례에 쓰는 모든 돈과 노력을 자신이나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이덕근 사도 요한 신부
(영등소라성당)

돌보는 데 쓰는 것이 “천배나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쾰링글리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피에르 비레(1511-1571)도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2코린 6,16) 우리 자신이 그의 집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그분을 영으로 찾기 때문”(1536)에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성전이 되며 어느 곳에서나 하느님을 찾을 수 있고 특정한 장소에 순례하는 행위 즉 물리적 성지순례는 가짜선행이며 우상숭배라고 비판한다.

위와 같은 사상은 개신교 신앙과 관행에 상당기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성지순례에 대한 계속된 개신교의 비판에도 오히려 우리 교회의 성지순례는 활발하다. 하지만 성지라는 그곳이 장소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신적 체험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순례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조건, 즉 사람은 영혼과 몸의 복합체이며 특히 믿는 신앙인은 교리적 명제에 대한 동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물질적 환경과 성유물을 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감각적 경험에 깊이 의존함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성지순례’는 영적변화와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한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신교 신학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순례행태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되새겨 봐야 할 부분일 것이다.



교구
소식

「2024 전동 순교제」 개최 안내



전동성당(주임=김성봉 신부)에서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의 순교일 12월 8일에 맞춰 「2024 전동 순교제」(이하 순교제) 행사를 마련한다.

12월 6일(금) 오후 5시에는 테너 이영화 마테오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의 ‘첫 순교 기념 음악회’

가, 12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이영춘 신부(호남교회사연구소장)와 함께 첫 순교자들의 전주 발자취를 따라 걷는 도보순례(중진영·전라감영·전주옥·전동성당)가, 12월 8일(주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교구장 김선태 주교의 주례로 ‘한국 첫 순교자 순교기념일 미사’가 봉헌되고 이어 오후 2시에 초남이성지 순례로 마무리된다.

2021년 유해 발견 후 첫 순교터인 전동성당에서 해마다 열리는 이번 순교제에서 첫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여 그분들의 삶과 신앙 유산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홍보국 정리 |

문의 : 전동성당 063)284-3222 / 010-2670-3129

남문안몰·남문문구센터

전주시 보건소 옆
문화누리카드/각종 지원금 가능
문구·완구 외 5만가지 상품몰
063)283-9100 원수관 야고보·심경이 마리아

서울영상의학과 MRI센터·심장센터

최신 AI장작 3.0T 지멘스 MRI 도입
심장초음파CT, 특수촬영
박인숙 아나다시아, 설명진(영상의학과)
김원호 베드로(심장내과) 063)278-1313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근력향상 위한 놀이 / 재활 물리치료
우울증·치매예방 뇌기능 개선 프로그램
전주노인건강복지센터
홍수현 데레사 010-2655-4222

서해젓집

국내산 새우젓 및 각종 고급 젓갈류 도·소매
삼천동 농협 공판장 내 위치
염점례 리더야
063)227-8111 / 010-3675-0091

아름다운 김현숙안과

쌍꺼풀수술·상안검성형술·하안검성형술
성형안과 정회원
원장 김현숙 레지나
신시가지 국민은행 5층 063)225-7717

성바오로복지병원

양·한방 협진, 수술 후 회복기, 암 환자
만성질환, 기타 요양이 필요한 질환(면회 가능)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063)249-3300~3302

하나투어 미래관광

1/13 나가사키순례 대한항공 직항 149만원
2/24 히년 이태리순례11일 대한항공 직항 550만원
4/22 산티아고순례길 800km 40일 409만원
변효석 루도비코 010.6797.8291/285-1365

전일관광 메주고리에 성지순례

그리스·알바니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
보스니아·이탈리아(매일 미사 드립니다.)
2025년 2월 16일~27일(12일간)
전일관광 조선 안토니오 063-288-6666

온누리 바른척추&통증관리

목·어깨·팔·허리·다리
척추 골반 통증 및 체형 관리
최민준 시몬 010-3684-5544
효자동 신기독병원 맞은편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25년 1/7 나가사키 4일, 1/13 나트랑·달랏 5일
1/21 태국·파타야 5일, 2/6 스페인·포르투갈 12일
한국성지 35만원부터~, 제주순례 39만원 부터~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양빛나 유외과

유방 갑상선 전문의·여성 전문의
원장 양빛나(리나), 이주환(요한)
효자동 홈플러스 맞은편 하나은행 4층
063)228-9336

전주미르치과병원

진료문의 063)224-7700
이선하 크리스티나 정희웅 프란치스코
허선 세라피나 정자실 소화테레사 김동욱 요셉
중화산동 은하아파트 사거리 (백제대로218)



제1회 비다인의 밤

교구 청소년교육국(국장=소명섭 신부)은 11월 15일 (금) 유항검관에서 제1회 비다인의 밤을 개최했다.

비다누에바(Vida Nueva)를 수료한 63명의 청년들이 이번 행사에 참석, 함께 기념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모임으로 비다인의 밤 행사를 만들었다.

비다누에바는 꾸르실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의미의 청년 신앙 쇄신을 위한 피정 프로그램이다.



홍석진 신부(교구 청소년교육국 부국장, 비다누에바 담당)는 “많은 청년들이 비다누에바에 함께 참여하여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 취재 : 이진주(교구 기자단), 사진 : 교구 청소년교육국 제공 |



Photo 소식



문실버요양병원(구, 문병원)

가톨릭 신자 내원 시 우대 혜택
원장 : 문지식 레나도, 기순중 안젤라
위치 : 경원동 KT 사옥 옆
063)282-8833~6/284-2918

전주항외과(구, 항병원)

치질·하지정맥류·탈장
위대장내시경·국가건강검진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카), 이관재, 황정환
228-6002 삼천동 세창짜임APT 맞은편

진 선 미 꽃 집

전국 꽃배달 서비스
범근배(방지거),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063)222-0004 / 010-3678-2628

- **성서주간 말씀잔치 파견미사**
11월 28일(목) 오후 3시 평화의 전당
- **사형제도폐지 세미나**
11월 29일(금) 오후 2시 CBCK
- **견진**
12월 1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서신동

이번 주 교구 행사

- **11월 25일(월)**
-태아와 어린이 축복미사
(오전 11시 자비의 성전)
-18차 새만금 생태계 복원 기원 월례미사
(오후 3시 햇창 갯벌)
- **11월 26일(화)**
-교정사목 정읍 봉사자 월례회의
(오후 4시 30분)
- **11월 27일(수)**
-사제 상설 고해성사(오후 4시 유항검관)
- **11월 28일(목)**
-성서주간 말씀잔치(오전 10시 평화의 전당)
- **11월 30일(토)**
-이주사목 후원.봉사자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우림)
-30기 성요셉아버지학교 실천2주차
(오후 2시 평화의 전당)
-홍보국 봉사자 송년감사미사
(오후 5시 교구청)
-고3피정(~12월 1일, 천호피정의 집)
- **12월 1일(주일)**
-가정성화분과교육(오후 2시 평화의 전당)

교구 내 알림

- **전주재속전교가르멜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 싶은 평신도
문의 : 010-3097-7764
- **사제부모회**
11월 30일(토) 오전 10시 30분 평화의 전당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4주년 행사**
1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문의 : 063-466-7981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주 1회 매주 화요일 20:00~21:20
대상 : 20-45세 미혼 여성
문의 : 010-9353-1773
- **천호성지 첫 목요일 성시간 및 특강**
12월 5일(목) 오전 10시 성시간
오전 11시 가정미사, 오후 강의 없음
- **제10회 전주가톨릭상담심리학회 피정**
12월 7일(토)~8일(주일) 평화의 전당
문의 : 288-9045, 010-7237-4627
신청마감 : 12월 4일(수)까지

교구 밖 알림

-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성소 모임**
대상: 40세 미만 미혼 여성으로
세상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
카카오채널: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문의: 0507-1306-1505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 입양 상담**
문의 : 02)764-4741~3
www.holyfcac.or.kr
-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안내**
일시 : 언제라도 문의 받습니다.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382-2214/010-7159-9674
-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 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 숙소 이용 가능
요나성당 인근 성지-서짓골 성지
갈매못순교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 041-934-7758
<https://yonaresort.modoo.at/>

2024 전동 순교제

- ▶ 12/6(금) 오후 5시 : 첫 순교 기념 음악회(테너 이영화 마태오)
- ▶ 12/7(토) 오전 9시 : 이영춘 신부님과 함께하는 도보순례
(첫 순교자들의 전주 발자취 : 종진영, 전라감영, 전주옥, 전동성당)
- ▶ 12/8(주일) 오전 10시 30분 : 한국 첫 순교자 순교기념일 미사(집전: 김선태 주교)
오후 2시 : 초남이성지 순례(12월 1일까지/ 신청: 284-3222 전동성당)

2025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4.11.1(금) ~ 11.30(토)

➤ 원서마감일 : 2024.12.2(월) 17:00

전주본원 주간 목요일 10:00-12:30
전주본원 야간 목요일 19:00-21:30
익산본원 주간 목요일 10:00-12:30

성서연수과

성서교육과

성서교육과 : 금요일 10:00-16:00

가톨릭교회교리서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
수요일 19:00-21:30

교리교육과
신앙연수과

교리교육과 : 원요일 10:00-16:00
신앙연수과 : 원요일 19:00-21:30

신규 과정 개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3편-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연수과를 졸업한 학생을 위한 강좌 안내 (1년과정)

전주가톨릭신학원 신앙연수과를 졸업한 학생을 위한 <가톨릭교회교리서 제3편>의 과정을 2025년도 1,2학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학원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학원 입학원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은 제외됩니다.

➤ 문의(행정실) : 063)230-1194

팔복동 성당을 도와주세요!

후원 계좌: 신한 134-005-441844(천주교유지재단)

팔복동 성당 전화: 063-211-8043



현재 팔복동 성당



신축 성당 조감도

“내가 죽기 전에 성당이 세워져서 내 장례미사는 번듯한 성당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팔복동 성당에 부임했을 때에 나이 많으신 자매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사목자로서 가슴아픈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조립식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행여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썰까 노심초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이곳 신자분들의 삶이 자매님의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본당이 물이 새는 조립식 지붕위에 포장을 덮고 생활을 할까요? 전주에서 어느 본당이 미사 중에 쥐가 돌아다녀서 쥐를 잡으려고 할까요? 회합실 바닥은 썩어서 꺼져가고 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에서 레지오 회합을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번듯한 성당에서 장례미사 걱정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이제는 번듯한 성당에서 비 걱정, 쥐 걱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성당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팔복동 성당은 정말 작고 가난한 본당이기에 교우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팔복동 성당 신자들의 꿈과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지향을 두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큐알 코드를 찍으면
팔복동 성당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